

전통외교의 보완재 공공외교 '집중'

전북대 - 한국국제교류재단 공동 세미나 내일 개최

한국의 공공외교 전략과 과제를 짚어 보는 세미나가 내일 오후 6시 30분 전북대학교 인문사회관 201호에서 개최된다.

전북대학교(총장 김동원)와 한국국제교류재단이 공동으로 마련한 이번 세미나는 '한국의 공공외교 전략과 과제'를 주제로 열린다.

이번 세미나는 지난해 7월 선정된 전북대 공공외교 역량강화 시범대학 사업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전라북도 국제교류위원장이자 전북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인 송기문 교수가 '현대 공공외교: 공공외교의 성격 및 추세 변화'를

주제로 다변화 시대 전통외교의 보완재이자 전통외교의 한계를 넘어서는 수단으로서 공공외교의 특징과 트렌드, 활용방안에 대해서 발표한다.

또한 북한화 전공자인 국제인문사회학부 박지연 교수는 '통일 공공외교: 독백의 필요성과 대화와 협동으로의 진화 가능성'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한반도 통일을 위한 국제정치 확보의 맥락에서 통일 공공외교를 논의한다.

끝으로 인하대 국제관계연구소의 장휘 교수는 한국국제교류재단(KF)이 추진 중인 '대학 공공외교: KF 공공외교 아카데미 사업과 한국 대학의 사

례'에 대한 연사로 나서 2016년 정부의 공공외교법 채택 이후 공공외교 주무 추진기관으로서 한국국제교류재단(KF)의 대학 내 공공외교 전문가 양성 사업 추진 현황 및 발전 방안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한다.

이 밖에도 국회 입법조사처 정치행정실장을 지낸 김영일 박사가 국회 경협을 바탕으로 입법적 관점에서 공공외교의 중요성에 대해, 중국전문가인 원광대학교 한중관계연구원 정치연구소장인 최재덕 교수가 통일 공공외교의 주요 전략 국가로서 중국에 대한 공공외교 전략에 대해, 전북대 정치외교학과 박성용 교수가 대학 차원의 공공외교 전문가 양성 방안에 대한 토론자로 각각 나선다.

한편, 지난해 8월 KF의 공공외교 역

량강화 시범대학으로 선정된 전북대는 공공외교 관련 2개의 학부과정과 대학원 교과목 2개를 추가 개설해 운영하고 있으며, 선정된 7개 대학 중 전북대와 고려대 만 별도의 프로그램과 예산으로 '공공외교와 한국'을 주제로 K-MOOC(<http://www.kmoooc.kr/>) 코스를 개설함으로써 일반인도 쉽게 공공외교 분야 수업을 접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지난해 여름 베트남 호치민에서 공공외교 활동의 일환으로 전북대 학생들이 직접 기획한 K-POP 공연을 주최하여 뜨거운 관심을 받았다.

전북대는 지난 1년간 등 사업의 실시 결과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 사업 추가 연장(2년)을 준비하고 있다.

/장은성 기자

21세기 바람직한 직업교육 방향 모색

도교육청, 오늘 시민감사관 정책간담회 통해 공감대 확산

전북도교육청 2019 상반기 시민감사관 감사가 진행중인 가운데 새로운 직업교육 도입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진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시민감사관들이 주관하는 정책간담회가 오늘 오후 3시부터 8층 회의실에서 개최된다.

이번 정책간담회 주제는 '21C 개방형(직업교육)학교 도입'에 관한 사항으로 지난 3월 시민감사관 협의회를 통해 선정된 감사대상 중 하나다.

간담회에는 시민감사관을 비롯해 도교육청 학교교육과, 미래인재과, 민주시민교육과 등 관련 부서 장학사·장학관 등이 함께 참여한다.

또 고등학교 진로담당교사나 학부모 등 관심있는 도민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이날 사례발표를 맡은 광주푸른꿈작 학교 최중안 교장은 학교 설립배경

과 교육과정, 직업교육 운영형식 및 평가·향후계획 등을 설명한다.

푸른꿈작학교는 직업중심 대안학교로 일반계 고교에 진학하고도 진로 문제로 고민하는 학생들을 위해 폭넓은 직업 선택의 기회를 제공하고 꿈을 현실로 만들어주고자 하는 취지에서 설립됐다. 일반고 2학년은 대상으로 진로선택의 기회 제공과 학생의 소질과 적성을 신장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운영하면서 호응을 얻고 있다.

이어 고산고등학교 장경덕 교장이 고산고 교육의 변화에 대해 발표한다. 대안계열 특성화고인 고산고는 대안교육을 희망하는 학생, 교육 다양성전형 대상자 등을 선발해 인문계 교육과정과 다양한 진로 탐색과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장은성 기자



실험실특화형 창업선도대학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전북대가 1차년도 사업 성과의 우수성을 인정받아 2차년도에 5억7,000만원의 창업지원금을 확보했다.

전북대, 실험실특화형 창업선도대학사업 '우수'

올 2차년도 140% 증액된 5억7천만원 지원금 확보

교육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원하는 실험실특화형 창업선도대학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전북대학교(총장 김동원)가 1차년도 사업 성과의 우수성을 인정받아 2차년도에 5억7,000만원의 창업지원금을 확보했다고 23일 밝혔다.

실험실특화형 창업선도대학사업은

교원과 대학원생의 실험실 창업 활성화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교육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공동으로 추진하고 한국연구재단이 기획·관리하고 있다.

지난해 5월 전북대를 비롯한 전국 5개 대학이 선정됐다. 전북대는 수도권 외 지역에서 유일하게 선정돼 유망한 예비창업실험실의 사업화를 적극 지

원하고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한 창업 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실험실 창업문화를 선도하고 있다.

전북대는 3월 말 발표된 연차평가에서 적합기술 선정 과정의 체계성과 높은 특허 확보 실적 등 실험실창업 취지에 부합하는 성과로 우수 평가를 받았다. 이에 2차년도에는 지난해보다 140% 증액된 5억7천만원의 지원금을 받게 돼 실험실 창업 지원에 더욱 탄력을 받게 됐다. 이에 따라 전북대 창업지원단은 대학원생들을 대상으로 한 창업아카데미와 멘토링 지원, 각종

포럼 등을 통해 지속가능한 실험실 창업지원을 이어갈 계획이다.

또한 비즈니스 모델 고도화 및 각종 투자역량강화 프로그램을 통해 예비창업실험실의 안정적 창업기반 조성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권대규 전북대 창업지원단장은 "실험실이 논문을 위한 수동적 연구에서 벗어나 사업화를 위한 적극적 기술개발의 새로운 주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전북대학교 창업지원단이 아낌없는 지원과 역할을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도교육청,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평균 경쟁률 11.3대 1

전북도교육청(교육감 김승환)이 지난 15일부터 19일까지 5일간 2019년도 전북도교육청 지방공무원 공개경쟁 및 경력경쟁 임용시험 응시원서를 접수한 결과 213명 선발에 2,408명이 접수, 평균 11.3대 1의 경쟁률을 나타냈다고 23일 밝혔다.

지난해에는 195명 선발에 2,602명(경쟁률 13.3대 1)이 접수했는데, 올해는 지난해보다 선발인원이 늘었음에도 접수인원은 194명(7.45%) 줄어 경쟁률이 낮아졌다.

공개경쟁임용시험 중 교육행정직은 일반 145명 선발에 1,780명(경쟁률 12.3대 1), 장애인 구분모집에는 8명 선발에 42명(경쟁률 5.3대 1), 저소득층 구분모집에는 4명 선발에 28명(경쟁률 7대 1)이 접수했고, 사서는 9명 선발에 57명(경쟁률 6.3대 1), 공업 일반직은 7명 선발에 36명(경쟁률 5.1대 1), 공업 일반직은 6명 선발에 27명(경

쟁률 4.5대 1), 시설 일반직은 2명 선발에 18명(경쟁률 9대 1), 시설 건축은 2명 선발에 31명(경쟁률 15.5대 1)이 접수했다.

또한 경력경쟁임용시험 중 공업 일반직(고졸)은 2명 선발에 30명(경쟁률 15대 1), 공업 일반직(고졸)은 2명 선발에 27명(경쟁률 13.5대 1), 시설 건축(고졸)은 1명 선발에 20명(경쟁률 20대 1), 운전 일반은 2명 선발에 28명(경쟁률 14.2대 1), 운전 보충형 추천 구분모집에는 4명 선발에 14명(경쟁률 3.5대 1)이 접수했다.

시험장소는 6월 3일에 전라북도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필기시험은 6월 15일에 실시하며, 필기시험 합격자는 7월 12일에 발표한다. 면접시험은 7월 26일에 치르며 최종합격자는 8월 5일에 발표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접수 현황은 홈페이지(www.jte.go.kr)에 공개한다.

/장은성 기자

도교육청, 기초학력 향상 실천교원 네트워크 운영

전북도교육청(교육감 김승환)은 다양한 배움의 속도를 존중하는 따뜻한 교실을 만들기 위한 기초학력 향상 실천교원 네트워크를 운영한다.

기초학력 실천교원 네트워크는 아이들의 배움과 가장 가까이 있는 교사의 성장과 나눔을 지원하여 학습더딤 발생 원인과 학생별 특성에 따른 맞춤형 학습지원을 돕고, 학교와 교사간 자발적 교류를 통한 상호성장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23일, 전주 왕의지빌 훈민정음홀에

서 첫 만남을 갖은 기초학력 실천교원 네트워크는 초등학교 중 회교교원 150명으로 구성되며 각자의 희망에 따라 영역별(지역별) 소그룹에서 활동할 예정이다.

전라북도교육청은 실천교원 네트워크의 활발한 교류 지원을 위하여 소그룹별 활동비를 지원하고 학습더딤 학생 지도 전문성 향상을 위한 블렌디드 연수를 운영하는 등 교원의 전문성 신장 지원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장은성 기자

원광대 봉사동아리 '해피니스', 자원봉사 우수 사업 선정

원광대학교(총장 박명수) 의과대학 작업치료학과 재학생으로 구성된 봉사동아리 '해피니스'가 (사)익산시 자원봉사센터에서 주관하는 2019년

자원봉사 우수 프로그램 공모사업에 선정됐다.

익산시 자원봉사센터는 매년 지역사회 자원봉사 및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해 프로그램을 공모하고 있으며, 공모 분야는 교육 및 문화체험, 자원활동, 연계활동 등으로 사업 선정 시 최대 100만원을 지원해 지역사회에서 봉사활동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연계활동 분야에 지역사회 소외계층을 위한 감각통합 프로그램을 신청한

해피니스는 작업치료 전공자식을 토대로 '나 감각 자극활동'을 봉사 프로그램으로 구성했으며, 4월부터 12월 까지 작업치료학과 재학생 51명이 익산시 관내 7개 기관에서 아동 및 노인을 대상으로 봉사활동을 시행한다.

/익산=장민천 기자

지구상에서 가장 빨리 뜨거워지고 있는 곳 '북극'

우리집을 지켜주세요

전문가에 따르면 자동차와 공장에서 나오는 탄소 배출량 증가로 인한 지구 온난화로 빙하들은 점점 녹고 있으며, 이는 지구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해양 얼음의 손실은 지구가 태양 광선을 효율적으로 반사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결국 지구 온도의 상승을 초래할 것이기 때문이다.

전주매일 지구온난화 캠페인